

집단 행동 이론의 비판적 개관(I): 집단내 행동 이론을 중심으로*

한 덕 응

성균관대학교 산업심리학과

집단 행동에 관한 집단내 이론들과 집단간 이론들 가운데 다른 이론들과 비교 논의가 가능한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이론의 발전 가능성과 대안 이론들의 상대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여러 이론들이 다양한 형태의 통합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도 모색하였다. 이 논문에서 집단내 과정 이론들로는 집단내 적용된 추동이론, 사회비교이론, 자기 제시이론, 자기주의이론이 포함되고, 집단간 과정 이론들로는 상대적 박탈이론들, 사회적 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이론, 그리고 집단간 관계를 다루는 귀인이론적 접근을 다루었다. 이 이론들 이외에 형평이론, 사회적 충격이론, 소수영향이론, 절차정의이론 등이 여러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논의되었다. 전체 논의에서는 여러 집단 이론들의 위상을 정해줄 수 있는 이해의 틀이 모색되었으며, 한국 문화에서 서구의 집단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데 따르는 몇 가지 문제점들도 검토하였다.

이 논문은 80년대 이후 서구에서 다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집단 심리와 행동에 관한 중요한 이론들을 상호 비교하여 비판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여러 이론의 수정이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해 보려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서구 이론들의 특징점과 대비시켜서 한국 문화에 적합한 집단 행동 이론의 창출 방향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장차 한국에서 집단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필자(1990a)의 관점에서 볼 때, 이 비판적 논의는 한국 문화권에서 설득력 있는 집단 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밑거름을 마련하려는 시도로 볼 수도 있다.

현재 집단 심리 분야에서 제안된 이론들은 주로 집단내 역학을 다루는 이론들(참조: Mullen & Goethals, 1987; Paulus, 1980, 1989)과 집단간 관계를 설명하려는 이론들(참조: Austin & Worchel, 1979; Taylor & Moghaddam, 1987; Worchel & Austin, 1986)이 상호 교류없이 독자적으로 발전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영역에서 제안된 이론들은 각 영역 안에서만 다른 대안 이론들과 비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측면에서 이 관행을 무너뜨리고 상호 교류와 자극을 촉진시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다. 개인 과정이나 대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

* 이 연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3년도 대학교수 국내교류연구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졌음.

편집자주: 전체 논문의 부피 관계로 이번호에는 집단내 행동 이론을 싣고, 다음호에는 집단간 관계 이론과 종합논의를 싣기로 한다.

안되었던 이론들을 수정하여 집단 과정을 다룰 수 있는 이론의 확장이 시도되기도 했다(예: Mullen & Goethals, 1987). 이처럼 집단 이론으로 수정되어 확장된 이론들 가운데는 집단내 현상뿐만 아니라 집단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와는 반대 방향에서 집단간 관계를 다룬 이론들 가운데 집단내 역학은 물론 대인 과정이나 개인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장된 이론들도 있다. 결과적으로 최근에는 대인 과정, 집단내 과정, 집단간 과정 가운데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다루지 않고 두 영역 이상에서 설득력있는 이론을 모색하려는 시도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집단내 행동이나 집단간 행동을 다루는 중간 범위의 이론들 가운데 영역 구분에 구애됨이 없이 상호 비교나 상호 보완이 가능한 내용들을 비판적으로 다루게 된다. 필자는 이 시도를 통해서 한편으로 각 이론의 수정이나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들을 검토하고,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형태로 두 이론 이상의 통합을 시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먼저 중요한 집단내 역학 이론들을 하나씩 다룬 후에, 이어서 집단간 관계에 관한 이론들을 차례대로 논의하기로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을 염두에 두고 각 부분에서 다루게 될 이론들의 선정에서는 필자가 보기에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최근에도 연구되며, 장래 연구에도 중요한 이론들로서, 한 개 이상의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각 이론을 비판, 수정 및 확장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이론들만을 가려내었다. 다시 말하면 집단 현상 가운데 극히 제한된 소 주제에 한정해서 이론화된 미세 이론들을 제외하고,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이론과 상호 비교가 가능한 중간 범위 이상의 중요한 이론들이 선정되었다. 이 기준에 합당하다고 필자가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집단내 행동 이론들로서 추동이론, 집단에서의 사회비교이론, 자기제시이론, 자기주의이론이 포함된다. 이어서 집단간 관계 이론들로는 상대적 박탈이론, 사회적 정체성이론 및 자기범주화이론,

그리고 집단간 관계에서 귀인이론적 접근을 다루게 된다. 이 기준에 적합한 이론들 가운데도 지면 관계로 여러 이론이 독자적 명칭 아래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범주에는 형평이론, 사회적 충격이론, 사회적 영향이론들, 소수영향이론, 절차정의이론 등이 포함되는데, 이 이론들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이론들에 제공할 수 있는 대안적 주장들만을 제시하게 된다. 이 논문 끝 부분의 종합 논의에서는 이 논문에서 다룬 여러 집단 이론들을 상호 연결지워서 조망할 수 있는 이해의 틀을 모색해 봄으로써 각 이론의 상대적 위상을 자리매김 하고자 한다. 또한 두 이론 이상의 비교 논의에서 부각된 장래 연구의 과제들을 간략히 정리하고자 한다. 끝으로 한국 문화권에서 집단 이론들을 발전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이론들을 간략히 논의함으로써 장차의 연구 과제들을 제시하기로 한다.

I. 집단내 행동 이론들

추동이론

이 절에서는 Hull(1943)의 추동이론을 사회적 촉진 현상에 적용한 Zajonc(1965)의 연구와 후속 연구들을 다루기로 한다. 사회적 촉진 현상을 설명하는 Zajonc의 이론은 단순 존재설(mere presence theory)이라고 부른다. 이 이론의 기본 가설은 동일한 종(種)에 속하는 유기체가 단지 존재하기만 해도 추동을 증가시킨다는 명제이다. 이 명제는 행위자 이외의 다른 유기체가 행위자의 추동을 일으킨다고 가정함으로써 명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추동이 동기적 힘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Hull(1943)과 수정 이론의 개요: 원래 Hull은 동물의 생물학적 욕구에 근거를 두는 일반화된 추동(D)을 가정했다. 그러므로 Zajonc의 수정 이론은 Hull의 생리적 추동을 사회적 추동으로 대치했다고 볼 수 있다. Hull 이론에서 추동은 행동의 일반적 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안된 개념이다. Hull 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Zajonc의 이론에서도 행동의 방향은 습관 강도(H)로 설명된다. 특정한 상황에서 추동 감각 효

과가 커서 높은 습관강도를 지니는 반응을 우세 반응(dominant response)이라고 부르고, 습관강도가 낮은 반응을 열세 반응(subordinate response)이라고 부른다. Hull이 흥분잠재력(E, excitatory potential)이라고 명명한 반응의 잠재적 강도는 추동과 습관강도를 곱한 값으로 결정된다고 가정되었다. 즉, $E = D \times H$ 의 곱하기 등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세 반응의 잠재적 강도는 추동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선형 관계에 가깝게 증가되지만, 열세 반응의 잠재적 강도가 증가되는 정도는 이보다 훨씬 둔화된다고 가정한다. Geen과 Bushman(1989)의 견해에 따르면, 추동이론에 관한 또 하나의 중요한 수정은 우세 반응과 열세 반응 모두에서 흥분 잠재력(E)에 한계를 짓는 반응의 상한효과(ceiling effect)가 있다는 가정이다. Broen과 Storms(1961)에 의해서 제안된 이 가정에 따르면, 이 상한효과는 신경계가 반응할 수 있는 생리적 능력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들이 제안한 가설에서 우세 반응은 추동이 중간 수준에 이르기 전에 최대 반응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열세 반응은 이보다 훨씬 강한 추동 수준일 때 최대 반응 수준에 이른다. 그러므로 열세 반응이 최대 반응 수준을 보이는 높은 추동 수준에 이르면, 우세 반응과 열세 반응 모두 최고의 반응 수준에 이르러서, 습관강도에 따른 반응의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Broen과 Storms(1961)의 수정 이론은 관중에 의해서 발생한 추동 수준이 매우 높은 조건에서 우세 반응과 열세 반응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결과들(예: Paulus & Cornelius, 1974)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사회적 촉진에 관한 추동이론적 접근: 사회적 촉진은 다른 사람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과제를 수행할 때, 혼자서 수행할 때에 비해서, 단순하고 잘 학습된 과제에서 더 잘 수행하는 현상으로 흔히 정의된다. 사회적 촉진이 이처럼 정의되기는 하지만, 추동이론을 이 현상에 적용해서 다른 내용들을 보면, 실제로는 관중 혹은 동일 행동 수행자들(coactors)이 있을 때 수행이 증진되거나 억제되는 현상을 모두 다룬다. 이 현상에 적용된 Zajonc(1965)의 추동이론은 다음 두 가설 명제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개인은 흥분의 유발을 경험하게 된다. 즉, 사회 상황이 일반화된 추동 수준을 증가시킨다. 둘째, 사회적으로 발생된 흥분의 유발은, Hull의 $E = D \times H$ 의 등식대로, 열세 반응보다 우세 반응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므로 관중이나 동일 행동을 수행하는 집단이 존재하면 우세 반응이 정답인 쉬운 과제에서는 수행을 촉진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우세 반응이 오답인 어려운 과제에서는 수행을 억제한다. 이에 덧붙여서 타인의 존재는 잘 학습된 반응의 수행을 증진시키지만, 새로 학습해야 할 반응의 습득은 방해한다.

사회적 촉진을 추동이론으로 설명할 때 타인이 현존함으로써 증가되는 추동의 성질에 관해서는 여러 대안적 설명들이 제안되었다. 다시 말해서 왜 타인이 추동 증가를 일으키는 지 설명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필자가 보는 바로는 다음에 제시하는 이론들이 모두 생리적 흥분 수준을 지칭하는 추동의 개념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Geen(1989; Geen & Bushman, 1989)의 주장에 따라서 추동이론의 틀에서 정리된 내용을 검토하면서 대안 이론들을 간략히 다루기로 한다. Geen(1989)이 사회적 촉진이론들을 분류한 방식을 살펴 보면, (1)추동이론의 범주에는 단순 존재설, 평가 우려설, 주의 분산/갈등설이 핵심이 되며, (2)직접적 영향설로서 자기인식이론과 자기제시이론, 그리고 (3)주의과정설로 나누고 있다.

① 단순존재설: 수행자와 동일한 종(種)에 속하는 유기체가 단지 존재하기만 해도 추동이 증가된다는 주장이 사회적 촉진에 대한 Zajonc(1965)의 원래 설명이었다. 이 이론을 지지하는 Markus(1978)의 연구들 예로 들면, 평가 단서들을 통제한 조건에서도 타인이 존재하기만 하면 사회적 촉진이 나타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타인의 단순 존재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인용된다.

② 평가우려설: 이 관점에서는 존재하는 타인이 잠재적으로 평가자 혹은 보상 및 처벌의 제공자로 지각되기 때문에 추동과 같은 흥분을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Cottrell, Wack, Sekerak 및 Rittle(1968)은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로서 타인이 수행자를 관

찰하는 관중일 때는 우세 반응을 활성화시키지만, 타인이 눈을 가리거나 수행자에 부주의한 조건에서는 우세 반응이 활성화되지 않음을 보고했다. Henchy와 Glass(1968) 역시 관찰자가 판단자로 여겨진 조건에서는 사회적으로 유발된 추동이 작용하지만, 타인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는 추동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음을 보고했다. 즉, 이들은 관찰자의 성질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유발되는 추동의 성질이 변화됨을 보고했다. Geen(1989, p.27)은 평가우려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가 많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긍정적 수행 효과가 예견되는 조건에는 평가 우려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Geen, 1979; Seta & Hassan, 1980). 필자(1990a, p.35)는 타인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사회적 촉진 효과와 비교하기 위해서 비록 개인이 혼자 수행하는 실험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묵시적으로라도 실험자나 타인에 의해서 수행 결과의 사용이 예견되면, 실질적으로 평가의 우려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단지 타인이 존재함으로써 항상 평가 우려가 나타나는지도 의문스럽다. 만약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가 쉬워서 정답이 우세 반응인 조건이면 높은 수행 수준이 기대됨으로써, 평가 우려가 아니라, 자기 제시 과정이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수행 결과가 좋지 않으리라고 예견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우세 반응이 정답인 특수한 조건에서만 타인의 존재가 사회적 촉진을 일으킨다고 본다.

한편, 평가우려설은 타인이 단순히 존재하거나 관찰자의 역할을 하는 조건이 아니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coaction condition)에서도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Geen(1980)은 평가우려설을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타인이 있는 조건에 적용한 바 있다. 그는 이 조건에서 묵시적으로 피험자들 사이에 경쟁심이 일어나서 경쟁에서 지리라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예견된 두려움 때문에 우세 반응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예언된다. 그러나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타인이 있는 경우에도 역시 여러 경로로 자신의 수행이 상대방보다 높으리라고 기대되면, 평가 우려가 아니라, 좋은 자

기상을 제시하기 유리한 상황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어떤 형태로든 타인과의 사회 비교가 가능한 과제의 수행 상황에서는 비교 대상과 자신의 수행에 대한 예견 결과에 따라서 평가 우려나 긍정적 자기 제시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비교 대상이 자신보다 우월한 수행을 보이리라고 예견되거나 예견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동일 과제를 수행하는 타인의 존재가 평가 우려를 유발할 수 있다. 이 상황들 가운데 타인과의 비교 평가가 모호한 조건에 관해서는 Zajonc(1980)의 수정 이론이 시사하는 바도 중요하다. 그는 자신의 단순존재설을 수정하여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유발되는 사회적 동기를 불확실성과 연결지은 바 있다. 즉, 타인의 존재는 항상 그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사하기 때문에, 예견되지는 않지만 타인과의 사회 환경에서 장차 나타날 수 있는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경우는 타인에 관한 사회 비교 정보가 결여된 모호한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비교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한 수행을 보이리라고 예견되는 조건에서는 긍정적 자기 제시가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필자의 이 설명은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타인이 있는 조건에서 대등한 타인과의 비교, 하향 비교 및 상향 비교 등 사회 비교 과정을 통해서 평가 우려가 수행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단에 적용된 사회비교이론 역시 사회적 촉진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평가 우려는 자기 수행이 타인보다 나쁠수도 있다고 예견되는 조건에 한정되므로, 좋은 수행으로 타인으로부터 좋은 평가가 예견되는 조건에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인상 관리나 자기 제시의 개념이 평가 우려보다 포괄적이다.

③ 주의 분산/갈등설: Baron은 비사회적 자극에 의해서 주의 분산을 일으키면 추동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Sanders & Baron, 1975). 그는 사회적 자극인 관중 역시 주의 분산을 일으킴으로써 추동을 증가시켜서 우세 반응의 활성화가 나타난다고 보고했다(Baron, 1986; Baron, Moore, & Sanders,

1978; Sanders, Baron, & Moore, 1978). 관찰자나 동일한 행동을 수행하는 타인이 있게 되면 수행 과제로부터 주의 분산을 일으킨다. 이 주의 분산은 타인과 과제에 주의가 많이 요구되는 조건에서 인간의 주의 용량의 한계 때문에 주의의 갈등을 일으킨다. 따라서 주의의 갈등이 수행에서 추동과 같은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 Baron(1986)의 수정 이론에서는 사회적 비교 과정이 주의 분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수행 수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타인들과 비교하고자 동기화될 수 있다. Baron의 이 설명은 사회 비교가 사회적 촉진의 직접적 영향 요인이기보다 타인의 존재가 주의 분산을 일으켜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촉진을 매개한다는 가정에 근거를 둔다. 주의 분산/갈등 설을 지지하는 대다수 연구 결과들은 대안적 설명으로서의 평가우려설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실험 설계를 통해 얻어졌다. 그러나 평가 우려 효과를 통제 한 조건에서도 주의 분산에 의해서 유발된 추동이 수행에서 우세 반응을 증가시킨다는 결과(Groff, Baron, & Moore, 1983)가 보고되기도 했다.

추동이론에 대한 대안 이론들: ① 주의 분산/갈등 가설은 최근 Baron(1986)과 Geen(1989)에 의해서 추동이론의 관점을 떠나서 정보처리와 주의 과정 연구에 근거를 둔 이론으로 새롭게 제안되었다. 이 관점에 의하면 과제 수행 상황에 존재하는 관중이나 동일 행동을 수행하는 타인은 일시적으로 자극 과부하를 일으켜서 단지 이용에 사용되는 주의의 폭을 좁히는 방어적 반응을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수정 이론이 제안된 배경으로 추동이론이 생리적 흥분 유발을 전제로 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존재가 생리적 흥분을 일으킨다는 직접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추동이론의 틀을 떠나서 수정된 주의 분산/갈등이론을 발전시키게 되면 사회적 촉진 이외에 주의 분산과 설득, 주의 분산과 스트레스 등 다양한 연구 주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Baron, 1986). Baron이 제안한 이론에 근거를 두고 Geen(1989, pp. 40-43)이 제시한 사회적 촉진이나 억제 과정 모형에 따르면,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의 분산, 평가 우려 및 불확실성이 주의 과부하를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이 과정에서 타인의 존재가 주의 분산 이외에 평가 우려와 불확실성을 유발한다고 가정함으로써 일종의 통합 모형을 지향함을 볼 수 있다. 주의 과부하는 흥분을 유발해서 사용할 단서들을 좁은 범위로 한정시키기 때문에 선택적 주의 집중을 초래하게 된다. 이 선택적 주의 집중으로 정답이 우세 반응인 쉬운 과제에서는, 수행과 무관한 타인이라는 지엽적 주의 분산 요인을 제거시키기 때문에, 수행을 증가시킨다. 반면에 오답이 우세한 어려운 과제에서는 수행과 관련된 중심 단서들에 대한 주의의 간섭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행의 저하가 초래된다. 현재로는 이 모형을 다룬 연구 결과를 평가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추동이론의 틀 밖에서 집단 수행의 이론이 제안된 점에 주목하고, 논평은 유보하기로 한다.

② 추동이론의 틀 밖에서 사회적 촉진을 설명하는 다른 관점으로 자기제시이론을 들 수 있다(Bond, 1982). 자기제시이론의 기본 가정은 일반적으로 인간이 타인들에게 가장 바람직한 자기상을 제시하고 좋은 인상을 주려한다는 데 있다(Schlenker, 1980). 그러므로 관찰자들 혹은 동일 수행자가 있게 되면, 수행자는 과제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자 동기화될 뿐만 아니라, 수행에 실패할 경우에 수행자의 당혹감은 더 악화된다. 과제가 단순하거나 친숙하게 학습된 경우에는 실패할 확률이 낮으므로 긍정적 자기 제시의 동기가 높으면 수행 증진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실패가 예견되기 때문에 생긴 당혹감은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스트레스와 인지적 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 Bond(1982)는 추동이론과 자기제시이론의 상대적 타당성을 다루기 위한 연구를 보고했다. 피험자들이 혼자거나 한 사람의 관찰자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짝짓기 연합 전이 과제 목록을 학습했다. 어려운 과제는 전이 목록 속에 어려운 새 짝연합들이 다수 포함되고 원래 학습한 쉬운 목록은 소수만 포함시켜서 만들었다. 쉬운 과제는 다수의 쉬운 목록들 속에 소수의 어려운 문항들을 포함시켰다. Bond는 추동이론의 예언대로라면 타인의 존재가 친숙한 문항들의 학습

을 촉진하지만 새로운 문항들의 학습은 방해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자기제시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타인이 존재하는 조건에서 어려운 문항들의 수행에 실패하면 당혹감과 인지적 간섭이 발생해서, 쉬운 어렵든 모든 문항에서 수행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추론했다. 실험 결과, 어려운 과제에서 실패하여 당혹감과 인지적 간섭이 나타났다고 추론되는 조건에서, 관찰자의 존재가 문항의 난도에 관계없이 모든 문항에서 학습을 손상시켰다. 또한, 다수의 쉬운 문항에 몇 개의 어려운 문항을 섞은 쉬운 과제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어려운 문항에서처럼 학습을 손상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제시이론의 예언과 달리, 타인의 존재로 인해서 쉬운 과제 목록 가운데 어려운 문항들의 학습이 촉진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자기제시이론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자기제시이론을 다룬 실증 연구들에서 흔히 발견되는 점이지만, 위의 연구 결과에 의해서 다른 대안 이론들의 타당성이 기각되고 자기제시이론의 가설이 입증되는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현실 상황에서 이루어진 다음의 두 연구 결과 역시 대안적 설명에서 이러한 한계를 지나지만, 자기제시이론이 가장 간결한 설명을 제공하는 점은 분명하다. Strube, Miles 및 Finch(1981)는 주의 깊은 관찰자의 존재가 자기 제시 동기를 유발한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이들은 30미터 이내에 다른 달리기 주자들이 없도록 만든 조건에서 남녀 대학생들을 혼자 달리도록 했다. 주자들은 각각 달리는 시간을 몰래 측정한 무관중 조건, 주자에게 잠시 시선만 마주치고 다른 일을 하는 척한 부주의한 관중 조건, 그리고 관찰자가 주자를 응시하고 계속해서 시선을 쫓는 주의깊은 관중 조건에서 달렸다. 이 연구 결과, 주의깊은 관중에 의해서 관찰된 주자들의 달리기 속도가 무관중 조건의 주자들 속도보다 빨랐다. 부주의한 관중 조건은 달리기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Worringham과 Messick(1983)도 45야드 짜리 두 구간을 달리는 피험자를 숨겨진 사진기로 촬영했다. 첫 45야드 구간에서는 모두 혼자 달린 후에, 2/3의 피험자들은 구부러진 주행로에서 길 가까이 앉은 실험 협조자를 만나도록 했다. 실험 협조자

를 만난 조건들은 얼굴을 마주치거나 혹은 외면한 조건이었다. 나머지 한 조건에서는 그대로 혼자 달리도록 했다. 이 실험 결과, 실험 협조자를 만나지 않은 조건보다 실험 협조자를 대면한 조건에서 두번째 구간의 달리기 속도가 빨랐다. 그러나 외면하여 부주의한 실험 협조자를 만난 조건에서는 통제 조건보다 달리기 속도가 유의하게 빨라지지 않았다. 다른 연구에서는 사전 수행의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따라서 사회적 촉진 효과가 평가 우려설의 예언과 달리 나타나는 현상도 보고되었다. Geen(1979)은 사전 과제 수행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은 타인이 관찰하는 조건에서 두번째 어려운 과제도 수행을 더 잘 함을 보았다. 이 결과는 추동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고, 자기제시이론이 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Geen은 이 조건에서 성공한 피험자들이 사전 수행을 통해서 좋은 자기 인상을 형성시켰기 때문에 사후 과제에서도 좋은 인상을 계속 유지하려는 동기가 작동하여 수행이 좋았다고 해석했다.

추동이론의 논평: 위에서 살펴본 몇 연구 결과들은 자기제시이론의 관점에서 사회적 촉진을 설명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추동이론에 근거를 두는 평가 우려설이나 주의 분산/갈등설의 예언과 잘 맞지 않거나 상반된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자기제시 관점은 긍정적 자기상을 제시하는 조건뿐만 아니라 부정적 자기상을 전적으로 타인들에게 제시하는 조건들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촉진이나 억제 현상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론적 확장이 필요하다. 특히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추동에 근거를 두든지 아니든지, 동양 혹은 한국 문화권에서 내의 집단 구성원인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상은 인상 관리나 자기 제시의 동기가 집단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달리 말해서 내집단이거나 외집단 관중에 의해서 촉발되는 추동 혹은 자기 제시 동기의 성질과 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발생된 생리적 흥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안된 Zajonc 이후의 추동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 관점에 당면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사회적으로 발

생된 추동 수준과 생리적 지표와의 상관 관계를 타당성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 비록 호흡이나 혈압 등에서 이 양자 간에 정적 상관을 보인 결과가 제시되었으나 추동이론이 요구하는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미흡하다(Geen, 1989, pp.18-22). 둘째, 특히 사회적 촉진이나 수행 억제 현상을 설명할 때 추동이론의 가정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더 간결하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대안 이론들이 다수 제안되었다. 그러므로 필자가 보기에 추동이론은 다양한 대안 설명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기본 가정을 수정하거나 추동이론이 잘 적용되는 한계 조건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집단에서의 사회비교이론

Festinger(1950, 1954)에 의해서 제안된 사회비교이론은 개인 심리나 행동을 타인과의 비교라는 대인 과정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이 발표될 당시부터 Festinger는 집단의 형성, 집단 구성원들이 지닌 의견의 획일화, 집단 구성원의 수행 수준에 대한 포부 등 집단 관련 현상들에 사회 비교 과정이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 가정들은 사회비교이론이 대인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집단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제안한 사회비교이론에 이러한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과정을 중심으로 깊이 연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단 과정에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Goethals와 Darley(1987)는 이 이론을 집단 과정 이론으로 확장을 시도한 바 있다. 이 절에서는 Festinger 이후에 제안된 사회비교이론의 핵심 명제들을 다룬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Goethals와 Darley가 집단 이론으로 확장을 시도한 내용을 다루기로 한다.

Festinger 이후 사회비교이론 연구: 대부분의 사회심리학자들은 Festinger 이론의 핵심을 다음의 네 가설 명제들로 정리할 수 있다고 본다. (1)사람들은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하려는 추동을 지닌다. (2) 사회적 비교 이외에 객관적 평가의 수단이 없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능력을 비교해서 자신의 의견과 능력을 평가한다. (3)이 사회 비교를 하

기 위한 대상으로 자신과 유사한 의견과 능력을 지닌 타인을 선택한다. (4)인간은 의견에서와 달리, 능력의 경우에는 비교 대상인 타인보다 우수해지려는 단일 방향의 추동을 지닌다. 이 가설 명제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이론의 핵심은 자기 평가에 관여하는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인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는 데 있다.

지금부터 Festinger의 사회비교이론을 다룬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들 가운데 위의 네 명제와 관련되며 집단 과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수정된 내용들을 차례대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먼저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의견을 평가하고자 원하며, 또한 자신의 능력이 비교 대상보다 우수해지려는 단일 방향의 추동을 지닌다는 가설을 다룬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자. 이 주제는 자기 타당화 혹은 자존심의 추동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Goethals & Darley, 1987, p.24). 자기 타당화의 욕구가 중요하다는 가정은 사회 비교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해석할 때 정적 자기 평가를 유지하려는 욕구에 의해서 편향되게 해석한다는 사실로도 입증된다. 예를 들자면, 성취 과제에서 수행이 이루어진 후에 자기 기여적 귀인(self-serving attribution)이 이루어지는 현상은 자기 타당화나 자존심 욕구가 작용하는 예로 볼 수 있다. 이 욕구 가정과 일관되게 타인 수행에 대해서는 타인 기여적 귀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자신의 현실보다 자기 평가나 자존심의 욕구와 일치되게 귀인이 일어나는 현상은 긍정적 자기 평가를 달성하거나 높이려 한다는 가설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현상들에 주목해서 Singer(1966)는 사회비교이론가들이 의견과 능력이라는 제한된 평가보다 전반적 자기 평가와 자존심에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Singer가 주장한 바와 같이 사회 비교가 전반적 자기 평가와 자존심의 추구와 관련된다고 보면, 이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은 집단내 역학이나 집단간 과정과 관련되는 다양한 현상들에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왜냐하면 집단에서의 사회 비교 과정, 인상 관리,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 집단 의사결정, 형평 등의 다양한 주제들을, Festinger 자신이 집단 과정에 적용한 집단 형

성, 집단 구성원 의견의 획일화, 수행의 포부 등의 효과들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집단간 관계에서는 집단 정체성, 집단 범주화, 집단간 귀인, 다수와 소수의 영향, 상대적 박탈, 집단간 편견과 차별 현상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사회비교이론의 기본 가설들이 이처럼 상호 접합된 형태로 다양한 현상들에 관여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집단에 적용한 사회비교이론을 다루는 부분이나 집단간 관계를 다룬 부분에서 선택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 사회 비교의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 관해서도 Festinger 이론이 발표된 후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되었다. 그의 이론에서 비교 대상은 자신과 의견이나 능력이 유사한 타인으로 가정되었다. 그러나 비교 대상에 관한 이 명제에서 유사성의 개념 정의도 모호하고 의견이나 능력 이외의 속성에서 비교 대상이 어떻게 선정되고 비교가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다. Goethals와 Darley(1977; 1987, p.26)는 유사성의 개념을 비교와 관련있는 배경 속성의 의미 유사성으로 재정의한 바 있다. 이 재정의는 Wheeler와 Zuckerman(1977)이 제안한 관련 속성 가설과 일치되는 내용이다. 여기서 관련있는 배경 속성의 유사성이란 비교하는 사람이 비교 대상의 의견이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의견이나 능력을 지닌 현실 배경 역시 자신과 유사하다고 지각한 경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의 선정에서 유사성을 이처럼 정의한다고 하더라도 사회 비교가 항상 유사한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다. 사회 비교 대상의 선정에서 유사하거나 유사하지 않은 대상과의 비교가 이루어지는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제안되었다(Metee & Smith, 1977).

비교 대상 선정에서 유사성의 기준이 항상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학자들로부터 몇 가지 대안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그 가운데 비교적 깊이있게 연구된 주제는 자기보다 열등한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하향 비교 과정을 다룬 Hakmiller(1966)의 연구에서 자신의 성격 특성들에 관해서 자존심에 위협이 되는 정보를 받은 사람들이 그 특성들에서 자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선택한다는 결

과를 얻었다. 즉, 자신의 부정적 특징들을 평가받는 조건에서는 유사한 타인들이 비유사한 타인들보다 더 자주 선택되지 못했다. 이 하향 비교 경향 혹은 방어적 비교 경향은 유사하거나 상향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과 상반된다. 친숙하지 않은 특징들에 관해서 타인들로부터 평가받는 조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다(Thornton & Arrowood, 1966). Wills(1981)는 더 적극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자신보다 못한 대상과의 비교에 의해서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이 위협받는 조건에서는 언제나 하향 비교의 욕망이 유발된다고 가정된다. 집단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조건을 생각해 보면, 주관적 안녕감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타인이 아닌 자신보다 못한 타인과 비교하는 하향 비교가 나타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한편, Brickman과 Bulman(1977)은 자존심이 손상되거나 타인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지각되는 조건에서 유용한 비교 정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하향 비교 이외에도 특정한 조건에서 비교 과정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가정한다. 이 주장과 유사하게 사회 비교 과정을 자기제시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도 제안되었다(예: Jellison & Arkin, 1977). 지금까지 비교 대상의 선택 과정을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Festinger의 비교 대상의 유사성 가설이 적용되는 조건은 한정되며, 특정한 조건들에서는 하향 비교나 사회 비교의 회피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 어떤 조건에서 유사한 비교 대상, 하향 비교 대상, 상향 비교 대상, 혹은 비교의 회피 등이 나타나는지 해명해야 한다. 이 과제는 아직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3) 사회 비교의 대상 선정과 관련해서 조직 상황이나 친밀한 대인 과정에서 형평이론을 적용한 연구들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형평이론은 분배정의이론, 사회비교이론, 및 인지부조화이론의 기본 명제들을 조합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 비교를 통해서 불형평이 유발된 경우에 불형평을 감소시키려는 동기가 유발된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어떤 대상과 사회 비교가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과소지급(underpay)이나 과다지급(overpay)이라는 불형평의 성질과 정도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도 비교 대상의 선정 과정에 관한 이론이 중요하다. 특히 일반 사회 상황이나 집단 상황에서도 가용한 비교 대상이 하나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 대상의 선택이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여기서는 사회비교이론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Goodman(1977, pp.110-115)과 Mowday(1979, p.139)의 비교 대상 선택 모형을 살펴보기로 한다. Mowday(1979)에 의해서 제안된 모형에서는 ①비교 타인에 관한 정보의 이용 가능성과 ②비교 대상의 관련성 혹은 매력도가 비교 대상 선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그리고 ②요인의 결정에는 비교 욕구의 강도와 비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성이 중요하다고 가정했다. 이 모형은 비교 대상이 유사한 타인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회 비교의 대상과 관련하여 형평이론으로부터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비교 대상인 타인의 개념적 성질이다. Goodman(1977, pp.108-110)은 비교할 타인으로 ①타인들, ②자기 기준 및 ③체계 기준의 세 종류를 구분한 바 있다. 이 가운데 Festinger나 다른 사회 비교이론가들이 주로 다룬 대상은 타인이다. 사회 비교라는 명칭에서도 시사되었듯이 비교의 대상이 자기 기준이나 체계 기준일 경우에도 사회 비교인지 물을 수 있다. 사회 비교 과정에서 타인이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다면, 자기 기준이나 체계 기준 역시 사회적 산물이며 사회적 기능을 지닌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이 가운데 자기 기준에 관해서는 전통적으로 사회 비교 과정을 중요시하는 상대적 박탈이론으로서 이미 Folger(1986)가 개인내 인지적 준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상대적 박탈이, 타인들과의 사회 비교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구성된 모의 상황에서 자기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인지적 준거이론은 현실 상황에서 어떤 개인내 인지적 준거가 형성되는가에 따라서 현 상태의 상대적 박탈 수준의 지각이 달라

진다고 가정한다. 그의 이론은 인간이 합리적 의사 결정자가 아니라 실제 경험을 편법 추론 방식(heuristics)에 근거해서 모의 상황들을 대안으로 사용하여 추론한다는 Kahneman과 Tversky(1982; Kahneman & Miller, 1986)의 이론에 근거를 둔다. 만약 사회 비교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추론 방식이 사용된다면 비교 대상으로 자기 준거 혹은 기준을 사용하는 개인내 비교 과정의 연구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4) 사회적 비교 대상의 선택이나 비교 과정이 항상 의식적으로 일어나는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지,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Goethals와 Darley(1987)는 사회 비교 과정이 상당히 사려깊은 의식적 사고 과정을 수반하지만, 적어도 어떤 측면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론바 무심한 비교 과정을 수반한다고 가정한다. 이 주제는 역시 집단간 관계에서 사회 비교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정체성이론과의 관계에서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Taylor와 Moghaddam(1987, p.75)은 Tajfel이 사회비교이론을 집단간 관계에 적용함으로써 Festinger보다 넓은 범위로 사회 비교 과정을 확장했다고 평가한다. 이들이 이처럼 평가하는 이유는 Tajfel의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 사회 비교 과정을 통하여 내집단의 상대적 지위와 가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사회적 정체성이론 부분에서 다룬 바와 같이, Tajfel은 사회적 범주화와 사회적 비교의 두 과정들이 어떤 관계를 이루는지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두 과정의 독립성, 선후 관계, 상호 영향 관계 등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많다.

집단에서의 사회 비교 과정: Festinger의 사회비교 이론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확장된 이론들이 집단내 역학이나 집단간 관계에서 어떤 주제들에 어떤 형태로 각각 적용될 수 있는지 세 주제만을 선택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1) 집단의 형성과 유지: Festinger는 구성원들의 의견이나 능력의 유사성을 근거로 집단의 형성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Goethals와 Darley(1987, p.32)는 사회적 정체성이론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서, 집단내

구성원 간의 대인 비교뿐만 아니라 집단으로서 집단 간 비교 과정에서도 자기 평가를 통한 개인의 자존심 추구 경향이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은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서 집단간 사회 비교를 가정하는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을 추구한다. Festinger는 집단내 대인 비교 과정으로 집단의 형성과 유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이 지닌 의견이나 능력들이 서로 다르면 구성원들이 자기 의견이나 능력을 평가하기가 어려워져서 집단을 형성하고 안정된 구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집단내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로서 그는 집단내 의견 혹은 능력에서 차이가 있으면, 이 차이를 경감시키려는 행위가 일어난다(파생 가설 D)는 가설을 제안했다. 이 행위로서 자기 의견이나 능력의 변화, 타인의 의견이나 행위의 변화 혹은 지속해서 차이를 보인 유사하지 않은 타인과의 비교의 중단이 나타난다. 또한 그는 의견 차이가 있는 구성원과 비교를 중단하게 되면, 이탈된 의견을 지닌 구성원에 대해서 적대과 훼손이 수반된다(방계 가설 VI A)고 제안한 바 있다. 이 방계 가설에 따르면 구성원들이 집단에서 지속적으로 이탈된 사람을 배척할 수 있다. 집단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Festinger의 유사성 가설은 주로 집단내 역학에 관련된 연구에 한정된다. 그러나 유사성을 비교되는 관련 속성의 의미로 재정의하면, 집단내 역학뿐만 아니라 집단간 관계, 특히 적대적 집단간 관계에서 이 가설의 타당성과 이 가설이 성립되는 제한 조건들을 더 잘 연구할 수 있다.

(2) 집단 의사결정: 집단 의사결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집단극화(集團極化, group polarization)와 집단사고(groupthink) 현상에도 사회비교이론이 적용될 수 있다. 집단극화란 집단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될 때 집단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이전에 지녔던 관점보다 더 극단적 관점을 취하는 현상이다. 집단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설득주장이론, 문화적 가치설 및 최근에 연구되는 사회적 정체성이론과 함께 사회비교이론을 중요한 이론들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 이론들에 관해서는 성한기, 1991, 1994; 간단한 개관으로는 한덕웅, 1990a, pp.37-40; 사회비교이론과 설득주장이론의 국

내 검증에 관해서는 한덕웅·성한기, 1985 참조). 집단극화를 사회비교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핵심은 인간이 타인보다 상향 지향적 경향을 지니기 때문에 타인들의 견해가 제공된 조건에서 이 견해들보다 가치있는 방향으로 극화된다는 가정이다. 따라서 모험적 결정이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집단 의사결정 과제에서는 모험 이행이 나타나고, 보수적 결정이 가치있다고 생각되는 집단 의사결정 과제에서는 보수 이행이 나타나게 된다. Goethals와 Darley(1987, p.39)는 집단극화 가운데 모험 이행은 미국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고, 사회비교이론을 이 현상에 한정해서 적용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와 같은 관점은 문화에 따라서 사회비교이론을 보수 이행의 설명에도 적용할 수 있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사회비교이론의 적용 한계를 지나치게 좁게 제한한 견해이다. 한국에서도 홍콩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 의사결정에서 보수가 문화적 가치로 받아들여져서 보수 이행이 나타난다는 일부 증거가 있기는 하지만(한덕웅·성한기, 1985), 한국에서도 모험적 관점이 가치있어서 선호되는 의사결정 과제에서는 모험 이행이 나타났다는(성한기, 1994).

집단극화 현상을 설명할 때 Turner, Wetherell 및 Hogg(1989)가 자기범주화이론에서 발전시킨 준거정보적 영향이론(theory of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과 사회비교이론을 비교하면 흥미있는 합치점과 상대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Turner 등의 이론에 의하면 자기 정체화된 내집단은 준거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에서 내집단 구성원들의 견해 가운데 전형이 되는 견해가 규범의 기능을 함으로써 구성원들은 이 규범에 동조하게 된다. 이 이론은 사회 비교의 구체적 준거를 내집단의 전형적 견해라고 봄으로써 사회 비교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이론의 가정이 타당하다면, 내집단 정체성과 사회 비교의 두 정보가 모두 제시된 집단 의사결정 조건에서는 내집단의 규범 정보 이외에 사회 비교 정보가 더 이상의 극화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고 예언된다. 이 준거정보적 영향이론으로부터 사회비교이론이나 설득주장이론에서 제안

하는 설득 정보의 설득 효과와 연결지워서 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한덕웅, 1990a, p.39). 국내에서 이 이론들의 상대적 타당성이나 통합을 모색한 시도는 성한기(1994)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한편,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병리적 의사결정인 집단사고에서도 사회 비교 과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 조직이나 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기구에서 나타나는 집단사고는 의사결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수혜 당사자들의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집단사고란 집단 구성원들이 합의점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정의된다. Janis(1982)가 주장하는 이 합의점 추구 경향의 선행 조건, 집단 사고 증후, 및 후행 결과와 이에 대한 간략한 비판은 국내에서 한덕웅(1990a, pp.40-42)에 의해서 시도된 바 있다. Janis가 제안한 집단사고 현상의 설명에서 사회비교이론이 대안적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집단의 합의점 추구 경향과 모험적 결정에서 초래될 나쁜 결과를 문제삼지 않는 경향이다. Goethals와 Darley는 이 현상을 사회비교이론으로 설명할 때, 자기 평가 욕구가 우세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타당화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집단사고가 나타난다고 해석한다. 이 가운데 집단의 합의점 추구 경향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실질적 의견 변화보다는 강요된 순종을 유발하고, 공포나 충성심 때문에 집단 합치점과 상반되는 의견을 지니더라도 이의 표현을 억압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서 Janis가 언급한 “만장일치의 착각”을 일으킨다. Goethals와 Darley(1987, pp.38-39)의 견해에 따르면, 이 일련의 과정은 자기 평가 동기보다 자기 타당화의 동기가 지배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재앙을 맞게 될 결정이라도 만장일치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이 결정으로 집단에서 높은 자존심을 경험하는 현상 역시 자기 평가보다 자기 타당화가 우세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집단의 집합적 과제 수행: Festinger의 일방향적 상향지향가설을 집단에서의 개인 수행에 적용해 보면 집단에서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좋은 수행을 보여야 한다. 이 가설이 타당하다면 원칙적으

로 자기 이외에 자기의 수행 수준과 유사한 다른 집단 구성원이 있는 조건에서, 혼자만 있는 조건보다, 수행이 좋아야 한다. 이 논리대로라면 유사한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 수행 조건에서 전체 수행량이 개인 조건의 수행량의 총화보다 높아진다고 예언된다. 이 예언은 이른바 집단 수행이 개인 수행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진다는 상반된 주장 가운데 집단 우월성의 가설과 일치된다. 이 주장은 구성원의 독자적 수행을 합하는 가산적 과제(additive task)인 경우에도 집단으로 수행하면 구성원이 홀로 수행한 양의 총화에 못 미친다고 주장하는 Steiner(1972)의 집단 수행 결손의 가설과 상반된다. 우리는 사회적 태만과 사회적 촉진 현상으로부터 집단 수행의 득실에 해당하는 두 경우가 모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렇다면 사회비교이론으로 이 두 경우는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Festinger의 용어를 빌리면, 단일 방향의 상향 추구 경향과 집단 안에 존재하는 능력 수준에서의 확일성 압력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서 수행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작업 상황에서 수행 수준의 확일성을 지향하는 압력은 자기 평가라기보다 자기 타당화 과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즉, 집단의 수행 규범들이 발전되어서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른 구성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높은 수행을 보이지 못하게 만든다. Festinger의 이론으로 보면, 집단 안에서 좋은 수행을 보이려는 경향과 확일성을 보이려는 경향 간의 갈등의 결과로서 구성원들은 이 두 경향의 타협점으로 다른 구성원들보다 다소 높은 수행 수준을 선호하게 된다. 그런데 모든 집단 구성원들이 이 타협 수준에 도달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월해지려는 압력과 규범에 동조하려는 압력 간 갈등의 결과로서, 집단 안에 지속적인 불안정 상태가 생기게 된다. 이 두 압력들이 나타날 수 있는 조건은 집단마다 다르지만, 일단 압력들이 갈등을 일으키면 집단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사회적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집단 구성원이 우월해지려는 압력은 외집단이 존재하거나 집단 내에 하위 집단으로 다시 내집단과 외집단이 구별되는 조건에서만 내집단 구성원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하위 범주화가 나타나

지 않는 조건이라면 이 이론에서는 집단 동일시를 통해서 집단 규범에 동조하는 행위가 나타난다고 예언된다. 이 두 이론의 예언이 일치되거나 상충되는 이 조건들에 관해서는 두 이론의 예언들을 상대적으로 검증하는 방향에서 연구가 필요하다.

집단간 관계에서의 사회 비교: Goethals와 Darley (1987, p.33)는 자신들이 수정한 집단간 사회비교이론은 사회적 정체성이론과 기본 명제들에서 유사한 점이 많으나 몇 가지 차이점도 지닌다고 본다. 두 이론의 유사성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자. 첫째, 사회적 정체성이론이나 상대적 박탈이론과 마찬가지로 집단간 관계에 적용한 사회비교이론에서도 모두 집단간 비교 과정을 가정한다. 특히,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는 사회비교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간 비교에서 자기 평가 과정을 강조한다. 그런데 자기 평가가 가장 기본 과정이라고 가정하는 사회비교이론과 달리,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는 집단간 비교를 통해서 정적 자기 개념 혹은 자존심을 추구한다고 가정한다.

둘째, 비교할 타인의 선정에 있어서도 사회적 정체성이론은 내집단과의 유사성 이외에 근접성 및 상황적 특출성을 강조한다. 달리 말해서 사회적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비교에서 유사성의 기준이 희박될 수도 있고, 비유사성의 기준이 채택될 수도 있다.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는 내외집단을 구분하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적 요인도, 내외 집단을 구별하여 범주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한, 집단간 비교에 영향을 미친다. Goethals와 Darley는 집단간 관계에 적용할 사회비교이론도 이 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사회적 정체성이론에 따르면, 가치있는 속성에서 외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 위치를 판단함으로써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경험하게 되면 집단을 떠나거나 집단의 개선을 시도한다고 예언한다. 내집단을 개선하려는 시도로서 흔히 외집단들과 경쟁하게 된다. Turner(1975)는 이 점을 명시해서 현실적 이해의 갈등과 마찬가지로 자기 평가의 욕구에 의해서 집단간의 경쟁이 동기화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1978)는 집단간 사회 비교의 개연성만으로도

자동적으로 집단간 경쟁을 일으키며, 때로는 자기 평가의 결과로서 심지어 자기 이해와 상반된 경우에도 집단간 경쟁이 나타난다고 본다. 집단간 비교 과정에서 사회비교이론의 비교 대상 선정 과정과 유사한 주장이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 제안되기도 했다. 즉, Turner와 Brown(1978)은 집단들이 서로 비교 가능하거나 특출한 경우에 외집단에 대한 경쟁과 차별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 두 기준들 가운데 비교 가능성은 비교 범주의 유사성을 포함하므로 사회비교이론에서 주장하는 유사성 가설과 비슷하다. Turner와 Oakes(1989, p.243)는 비교 가능성을 “비교하기가 의미 있을 만큼 충분히 유사함”으로 정의한 바 있다.

넷째, 사회비교이론은 사회적 정체성이론과 비교할 때 다음 몇 가지 점에서도 거의 동일한 관점을 보인다. 우선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에서 하향이나 상향 비교 원리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사회적 정체성 이론에서 지위가 높거나 낮은 외집단과의 비교에서 비교 대상을 옮기는 현상과 유사하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는 외집단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집단 지위의 개선을 추구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사회비교이론에서 개인 수준에서 설명한 일방향적 상향 추동을 집단간 관계에 수정하여 적용하면 유사한 내용이 된다.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에서 제안된 관련 속성 비교 가설은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 주장하는 비교 가능한 외집단인 경우에 집단간 경쟁이 증가된다는 가설과 조화될 수 있다.

집단간 관계에서 수정된 사회비교이론과 사회적 정체성이론이 이상과 같은 유사점을 지니지만, 다음 두 가지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첫째, 사회 비교하려는 동기의 설명에서 두 이론이 서로 다르다.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는 자기 지식(혹은 자기 평가)이 아니라 자기 타당화(공정적 정체성 추구)가 사회 비교하는 동기이다. 그러나 사회비교이론에서는 개인의 의견, 수행, 성과, 정서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회 비교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에서 자기 타당화의 과정이 사회 비교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지침으로서 중요함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이 기본 관점의 차이는 분명하다. 둘째, 두 이론 모

두 사회 비교가 항상 추구되지는 않는다고 가정하는 점은 공통되며, 외집단이 특출하고, 이용 가능하고, 유사하면 비교가 나타난다고 비슷하게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 정체성이론에서는 이 조건에서 사람들이 내외 집단으로 범주화하며, 외집단에 대해서 차별 경향을 거의 자동적으로 보인다고 가정한다.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에서는 범주화와 차별 경향의 자동적 처리를 가정하지는 않지만, 이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지도 않는다.

수정된 사회비교이론에 대한 논평: Festinger에 의해서 대인 과정 이론으로 제안된 사회비교이론은 최근까지의 연구 결과에 근거를 두고 집단내 역학이나 집단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평이 확장되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회비교이론의 확장에는 미비한 점이 많지만, 집단내 과정이나 집단간 과정을 다루는 이론들과의 관계에서 상호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자기제시이론

자기 제시(self-presentation)란 다른 사람에게 자기에 관한 정보 혹은 자기의 일부 심상을 전달하는 행동으로 정의된다(Baumeister & Hutton, 1987). 자기 제시 현상의 배경을 이루는 일반 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기 제시하는 사람은 자신이 이로움을 얻고자 관중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관중을 조작하여 특수하고 유용한 자기 인상을 조성하도록 자신을 관중들에게 제시한다. 자기 제시는 인간 행동에서 일군의 동기들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자기 제시를 일으키는 동기들은 상황 요인들과 타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 제시 동기는 타인에 의해서 자신이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각한 상황에서 자신을 평가하는 타인들의 존재와 자기 행동에 관한 타인들의 지식에 의해서 유발된다. 자기제시 이론은 원래 대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으로 제안되었는데, 집단 역학이나 집단간 관계에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 절에서는 자기제시 이론을 집단 이론으로 확충하는데 따르는 과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자기 제시 동기들이 잠재적 관중으로 표상되는 타인들의 현존에 의해서 유발됨을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집단 상황도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자기 제시 동기를 유발한다. Baumeister와 Hutton(1987, p.72)에 따르면, 자기제시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자기 제시 현상들 때문에 집단 과정 이론으로 성립될 수 있다. 첫째, 집단 구성원 각자의 행동은 행위자가 다른 구성원들이 행위자를 어떻게 지각하는지 관심을 갖는 바에 따라서 결정된다. 둘째, 집단이 다른 집단에 자기 집단을 제시하는 현상이다. 이 두번째 현상에 대해서는 자기제시이론이 주목하지 못했었다. 이 두 현상은 각각 집단내 과정과 집단간 과정에서 자기 제시 현상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집단 상황에서 다른 구성원들이 개인을 어떻게 보는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Baumeister와 Hutton(1987)은 다음의 세 이유를 든다. 우선,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은 대인간의 상호 평가에 의해서 구조화되고 틀이 잡힌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은 집단이 존재하고 구성원들이 만나는 한, 계속해서 타인들의 평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둘째, 집단은 구성원들에게 보상과 처벌을 제공함으로써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구성원으로서 나머지 구성원들에게 좋은 인상을 지워주는 일이 보수를 얻고 처벌을 피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셋째,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공적 자기를 구성하고 이를 실행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집단은 공적 측면에서 형성된 공적 자기를 다른 구성원들에게 제시할 기회가 된다.

집단 과정에서 자기 제시가 중요함을 시사한 내용은 Hogan(1982)에 의해서도 제안되었다. 그는 자기 제시가 가까운 친구 집단과 크고 부분적으로 내면화된 준거 집단에 의해서 구조화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친구 집단이나 준거 집단 가운데 어떤 집단을 지향하는지가 개인마다 다르다는 개인차 이론을 제안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인간이 관중이 좋게 보는 방향으로 자신을 위협하거나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인상지우려는 전략도 사용한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서 자기 제시를 이끄는 자기상들이 때로는 방어

적일 수도 있어서 자신이 주장하기보다 부인하는 자기상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관중에게 자신을 좋게 인상지우려는 자기 제시 방식을 Baumeister와 Hutton (1987)은 자기를 내세우는(self-construction) 동기라고 부르고, 관중을 기쁘게 해주려고 자신을 위협하거나 무력하게 제시하려는 동기를 타인 기쁘게 하는(others-pleasing) 동기라고 불렀다. 이들은 이처럼 자기 제시의 동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동기들 간에 갈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한다. 예를 들어서 관중이 자신이 바라는 이상이나 성향과 상반되게 행동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서는 관중을 기쁘게 하려는 동기와 자기를 내세우는 동기가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 이 경우에는 집단의 기준과 기대에 따르려는 욕망과 자신이 바라는 공적 자기상을 형성하려는 욕망들의 절충으로 행동이 나타난다. 주관적으로는 이 절충하는 일이 교제, 위선, 혹은 동조로 느껴질 수 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관중을 기쁘게 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두 동기 간의 균형은 집단에서 자기의 지위와 세력, 집단에 대해서 자기가 지닌 매력, 의존성 등 여러 변인들에 의해서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공적 행동과 사적 행동 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자기 제시적 요인들이 작용했다는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집단에서 자기 제시를 연구하려면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알려지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지를 다루면 된다.

Schlenker의 자기정체화이론: 지금까지 집단에서 자기 제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Baumeister와 Hutton (1987)의 이론바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차이 이론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기제시이론은 이들 이외에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이 이론들을 적용하면 집단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더 유용한 이론을 만들 수 있다. 예를 들면, 필자가 보기에 Schlenker(1985; Schlenker & Weigold, 1989)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정체화이론(self-identification theory)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자기정체화이론에 관해서는 자기 조절 과정과 관련하여 필자(1994a, pp.433-462)의 줄에서 비판적으로 다룬 바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집단 관계에 적용할 수 있

는 요점만을 다루기로 한다. 이 이론은 특정한 시점에서 상황과 관중이 되는 타인들에 따라서 개인 목표나 상황의 해석에 자기 개념이 개입하게 되며, 이 해석에 근거를 두고, 자기 목표에 알맞는 가변적이고 상황적인 자기상을 수립한다고 가정한다. 이 자기상의 형성이 자기 정체화인데, 이를 직접 정의하면 “자신이 특정한 유형의 인간임을 (관중에게) 보임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과정, 수단 혹은 결과이다”(Schlenker, 1985, p.65; 한덕웅, 1994a, pp. 434-435). 자기 정체성의 표출은 자기 반성을 통하여 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자기 제시와 같이 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공적 자기 정체화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범주화하고, 평가하며, 상호 판단하기도 한다(Schlenker & Weigold, 1989, p.245). 그의 이론 가운데 집단 과정에 특히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타인들을 관중으로 삼고 자신을 노출하거나 제시하는 공적 자기 정체화이다. 이 이론에서 공적 자기 정체화도 행위자 개인, 상황 및 관중의 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된다.

이 가운데 개인 요인들로서는 성격, 가치, 목표 및 감정 혹은 정서 상태가 중요하다. 이 요인들은 ①자기 개념 가운데 상황에서 나타나는 우세한 자기상을 형성하도록 함으로써 영향을 미치거나, ②특정 목표를 선택하는데 기여하는 욕구와 가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거나, ③내부 지향성 혹은 자기 신념이나 이와 상반되게 외부 지향성 혹은 타인들의 기대에 주의를 집중시킴으로써 자기 정체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 주장을 집단에서의 자기 제시 과정에 적용하면, 집단 조건에서 자기 개념 가운데 우세한 자기상, 욕구와 가치 및 내부 지향 - 타인 지향이 자기 제시하려는 자기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므로 개인 요인들로서 이 세 요인들을 고려함으로써 개인이 자기 정체화된 어떤 자기상을 자기 제시하려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타인들과의 사회 비교의 측면에서 우수한 자기상, 유사한 자기상 혹은 열등한 자기상들 가운데 행위자가 어떤 자기상을 제시하려 시도할지 자기 제시 이전에 예측할 수 있다.

Schlenker가 제안하는 상황 요인들은 ①개인이 지닌 가치나 목표를 충족시키거나 방해할 수 있으며, ②사회적 역할, 규칙, 의식 및 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정체화에서 중요하다. 개인적 친교 집단들과는 달리, 자기상과 다른 자기 제시가 필요한 대부분의 집단들에서는 사적 자기상보다 이 상황 요인의 영향으로 공적 자기상에 따라서 자기 정체화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정체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 관중 요인들은 ①자기 자신, ②자신과 상호작용하는 타인, ③자신의 사고나 행동의 준거가 되는 중요한 타인 혹은 집단의 세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②는 사회비교이론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③은 자기 행동의 전형이나 평가자의 기능을 한다. Schlenker 이론에서 이 세 관중 요인들의 상대적 우세성은 대체로 자기보다 타인이 세력에서 우월하거나, 매력적이거나, 자신이 특정한 관중에 주의 집중함으로써 강한 영향력을 지니게 된다. 이 가정을 집단 상황에 적용하면, 특히 타인의 세력이 우월하고, 매력적이며, 그 타인에 주의가 집중된 조건에서 사적 자기와 구별되는 공적 자기의 제시가 강하게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다. Schlenker의 자기정체화이론을 이 정도만 수정해서 적용해도 집단 상황에서 자기 제시가 강하게 나타나는 조건과 자기 제시의 방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집단 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자기제시이론을 이 정도만 수정하더라도 Baumeister와 Hutton(1987)에 의해서 제안된 자기제시 이론보다 이론으로서 검증 가능성이 높아진다.

Schlenker는 자기 정체화의 결정 요인들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자기 정체화가 결정되는 규칙에 대해서도 이론을 제안한 바가 있다. 바람직한 자기상의 신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두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형성된 자기상의 ①믿을 수 있는 가능성(believability)과 ②개인적 이익이 될 가능성(personal beneficiality)이다.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자기상에 관한 신념이 정확하며 실제 증거들로부터 방어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개인적 이익 가능성이란 이 신념을 지닌 사람의 가치와 목표에

기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집단 과정에 이 두 규칙을 적용해 보면 이론적으로 흥미있는 과제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정체성이론이나 자기범주화이론에서 가정하는 자기 정체화에 이 규칙을 적용해 보자. 이 두 이론에서는 일관되게 개인이 자기 정체성을 사적 자기로부터 사회적 혹은 집단적 자기에 이르기까지 범주화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칙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을 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의하는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다. 다만 사회적 정체성이론 혹은 자기범주화이론에서는 당면하는 사회 상황에서 개인적 범주나 집단적 범주가 상대적으로 특출하고 우세한 정도에 따라서 각각 개인적이거나 사회적 자기 정체성 혹은 자기 범주화가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 관점에서는 상황에서 제공된 우세한 범주화 단서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사적이거나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형적인 상황 혹은 환경 결정론의 관점이다. 그러나 Schlenker가 제안한 자기 정체화 규칙을 적용하면, 집단 상황에서 우세한 단서만이 아니라, 개인적 범주화나 집단적 범주화 가운데 자기 정체로서 믿을 수 있는 가능성과 개인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에 따라서 자기 정체화된다고 예언된다.

Schlenker 자신은 자기정체화이론을 집단에 적용한 바가 없으므로 필자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집단 상황에서 사회적 범주화의 객관적 단서가 있더라도 개인적 정체화가 이루어지는 조건을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집단 과제 수행에서 개인에게 돌아올 이익이 작거나 책임 분산이 가능한 조건에서 집단 수행의 기준이 높더라도 사회적 태만이 나타나는 현상은, 열심히 수행해서 우수성을 보이는 자기상이 믿을 수도 없고 이익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서, 집단적 정체화보다 개인적 정체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상황 단서의 특출성과 우세성에 따라서 집단적 자기 정체화가 이루어진 상황도 동일한 두 규칙들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근거에서 Schlenker의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사회비교이론과의 관계에서 비교 대상의 선정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기여할 여지

가 있다. 사회 비교 대상으로 우수한 타인, 유사한 타인 혹은 열등한 타인과의 비교가 우세하게 작용하는 배경도 이들과의 사회 비교를 통해서 형성되는 자기 정체성을 믿을 가능성과 개인적 이익 가능성의 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알아냄으로써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자기정체화이론이 사회비교이론과 통합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집단에서의 수행: 지금까지 자기제시이론을 집단 상황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과제들을 몇 가지 주제에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를 토대로 자기제시이론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주제에 한정해서 집단내 역학이나 집단간 관계를 다루기로 한다. 타인이 있거나 혹은 집단에서 과제를 수행하게 되면 개인 수행과 달라지는 현상은 사회심리학 연구가 시작된 초기부터 잘 알려져 있다(예: Triplett, 1898). 이 현상 가운데 특히 주목을 많이 받은 연구 주제가 사회적 촉진과 사회적 태만이다. 사회적 촉진이란 타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혼자 있을 때보다 수행을 더 잘하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타인도 행위자와 동일한 수행 활동을 하는 조건에서 개인 수행 때보다 행위자의 수행이 증진되는 현상을 다룬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현상이 단순하고 잘 학습된 과제에서 나타났다. 사회적 촉진 현상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들 가운데 자기제시이론을 적용한 이론이 Bond(1982; Bond & Titus, 1983)에 의해서 이미 제안된 바 있다. 그는 사회적 촉진 효과가 타인들의 잠재적 평가에 대한 관심 때문에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제시 동기와 행동 과정이 나타나서 사회적 촉진이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Baumeister(Baumeister, 1982; McFarlin, Baumeister & Blascovich, 1984)도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집단 수행 조건에서 자존심 수준에 따라서 자기 제시 방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행 수준도 달라짐을 입증했다. 그는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어서 야심적인 자기 제시 방략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공적이고 창피를 당하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은

또 다시 실패하는 일을 피하기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쏟게 된다고 가정했다.

앞에서는 타인과 함께 일할 때 사회적 촉진이나 타나는 현상을 자기 제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런데 타인과 함께 일하거나 특히 집단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조건에서 사회적 촉진과 상반되게 사회적 태만이 나타나는 현상도 잘 알려져 있다. 사회적 태만이란 개인이 혼자 일할 때보다 집단의 구성원으로 일하게 될 때 덜 열심히 일하는 경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집단에서의 개인 수행은 홀로 수행한 개인 수행보다 낮으리라고 예언된다. Latané(Latané, Williams, & Harkins, 1979)의 박수치기나 소리지르기 실험에서 개인 수행일 때에 비해서 수행자가 2명이면 82%, 5명이면 74%의 수행을 보였다. Baumeister와 Hutton(1987)은 이 결과가 자기 제시를 매개로 나타났다고 해석한다. 즉, 피험자들이 익명인 이 실험에서 개인 정체성이 확인되는 조건과 달리, 타인에게 수행 수준을 드러내는 자기 제시의 동기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 태만이 나타나고 집단 노력에 무임편승(free riding)했다고 해석했다. 이와 같은 논리에서 자신의 정체가 확인되는 집단 수행 조건에서 사회적 태만이 일어나지 않거나 극소화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그들이 조심스럽게 논평하는 바와 같이, 집단 수행의 결과를 모두 자기 제시에 의해서 초래된 효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특정한 조건에서 긍정적 자기 제시 동기가 약화되면 사회적 태만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자기제시이론은 집단에서의 수행에 대한 보상 분배에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예를 들어서 집단에서 보상 분배 규칙의 적용에도 자기 제시 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동일한 수행 후에 자기나 내집단에 비해서 타인이나 외집단에 과다지급하는 일이 긍정적 자기상을 제시하는 방략이 되는 조건이 있다. 이와 달리, 공평 규범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조건에서는 형평분배가 자기 제시에 합당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되는 연구들도 있는데, 자기 제시 요인들이 작업에서 공정한 보상의 지각에 영향을 미침도 보고되었다(Greenberg,

1983). 이와 관련해서 성별 차이에 따라서 공정 보상에 대한 지각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동일한 작업에 대해서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적은 보수가 공정하다고 지각했다(Deaux & Major, 1987). 반면에 Major와 Adams(1983), 그리고 Major, McFarlin 및 Gagnon(1984)의 연구에서는 보상 지급 규범이 특출한 조건에서 여성들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 연구들은 자기 제시 동기에 따라서 형평 분배나 불형평 분배에 대한 선호와 반응이 달라짐을 시사하기 때문에 형평이론에서도 자기 제시 과정을 다룰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자기제시이론의 논평: 자기제시이론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이론의 수정 방향과 집단 연구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다. 자기제시이론은 대인 과정 이론으로서뿐만 아니라 이 이론을 집단 과정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다음의 몇 가지 미해결 과제들을 지닌다(Baumeister & Hutton, 1987). 첫째, 다수의 하위 집단을 지닌 복잡한 집단에서 다양한 자기 제시 동기들 간의 갈등이나 관중의 기대들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바라는 여러 자기상들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때 어떤 자기상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제시되게 될 자기상으로 선택되는지 해명해야 한다. 둘째, 자기 위협이 되는 자기 결함 공개 방략(self-handicapping strategies)과 자기 탄원 방략(self-supplication strategies)들은 단지 전술적으로만 채택되는 방략으로 볼 수 있다. 이 방략이 집단에서 사용되는 조건에 관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기 제시가 적용되는 구체적 집단 맥락을 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집단에서 개인 구성원의 자기 제시 과정을 떠나서 집단 전체로서 다른 집단에 집단적으로 내집단을 제시하는 과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긍정적 내집단 정체성이 높은 조건에서는 긍정적인 집단적 자기상을 제시하려는 동기가 높을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외집단과 대비해서 내집단의 우수성을 제시하려는 방향으로 집단간 비교와 집단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내집단 정체성이 높으며 높은 집단 응집성을 추구하

는 조건에서 집단사고가 나타나는 현상도 집단적 자기 제시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제시이론을 집단 과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집단 수행에서의 사회적 태만이나 사회적 촉진 등의 현상에서는 상당한 설득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기제시이론은 집단극화와 같은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용된 바 있다(Jellison & Arkin, 1977). 사회적 정체성이론이나 집단에서의 사회비교이론들과 관련지어서 연구한다면 자기제시이론이 집단간 관계의 이해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필자는 특히 한국 문화심리학의 측면에서 자기제시이론이 대인 과정과 마찬가지로 집단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본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서구 문화권에서보다 타인에게 자기 심상을 전달하는 자기 제시 과정에서 전달 대상인 타인이나 집단으로부터 예상되는 반응에 더 민감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집단에서 자기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사람은 자기 제시와 관련된 타인의 기대나 내집단의 규범 혹은 규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가정은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의 기대와 내집단 규범이 자기 제시 행동의 방향과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유학 사상의 영향 등으로 한국 문화에는 사회적 지위나 연령 등 역할 관계 별로 규정된 자기 제시의 규칙이 관습으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체면치레나 허례 허식 등은 한국 문화권에서 토착화된 자기 제시의 관습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전통적 자기 제시의 규칙들이 집단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자기주의이론

자기 주의 과정에 관한 이론은 Duval과 Wicklund(1972; Wicklund, 1975)의 객관적 자기인식이론에 근거를 두고 발전되었다. Carver와 Scheier(1981, 1990)는 제어이론(control theory)을 수정하면서 Duval과 Wicklund의 이론을 수용하여 자기가 주의의 초점이 된 조건에서 초래되는 자기 조절 과정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집단 과정에 적용된 자기주의이론들(예: Mullen, 1983, 1987; Prentice-Dunn & Rogers, 1983, 1989)은 대체로 Carver와 Scheier의 제어이론을 모형으로 삼고 있다. 이 절에서는 집단 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제어이론의 핵심점들을 간략히 설명한 후에 집단 과정에 적용된 연구들을 다루기로 한다. 제어이론과 객관적 자기인식이론에 관한 상세한 설명과 비판적 논의는 필자의 저서(1994a, pp.341-365, pp.373-381, pp.463-470)를 참고하기 바란다.

제어이론과 자기인식이론의 성질: 제어이론에서는 특출한 자기의 행동 기준이 이미 설정되어서 준거체계를 이룬 조건에서 행동의 결과가 환류되면, 행동 기준과 환류된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자기 조절 과정을 작동시킨다고 가정한다. 이때 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행동 기준에 합치되도록 차이를 경감하고자 제어 체계를 작동시키는 동기 강도가 강하다. Carver와 Scheier는 이 제어이론에 자기 초점적 주의 과정을 덧붙여서 이론을 수정하였다. 자기 주의란 자신이 자기 주의의 초점이 되거나 혹은 자신을 인식하는 과정이다. Duval과 Wicklund(1972; Wicklund, 1975)의 객관적 자기인식이론에서는 “객관적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자극들은 객관적 자기 인식을 증가시키지만, 다른 모든 자극들은 주의를 외부로 돌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했다. 객관적 자기 인식이 이루어지면 자기 이상과 객관적 자기의 차이를 경감시키려는 동기를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이상적 자기 기준에 유사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예언한다. Carver와 Scheier가 제어이론에 자기주의이론을 통합시키려 시도한 배경은 아마도 두 이론 모두 공통적으로 자기 차이의 경감 과정을 가정하는데 있을 듯하다. 즉, 두 이론 모두 자기의 행동 기준과 환류된 행동과의 차이에 대해서 자기 주의 혹은 자각이 일어나면, 자신이 설정한 행동 기준에 합치되도록 강하게 자기조절하는 과정이 작동된다고 가정되는 점에서 일치된다.

제어이론을 집단 과정 이론으로 확장할 때 특히 주목을 받은 요소가 자기 집중된 주의 혹은 자각 요인이기 때문에 흔히 자기주의이론이라고 부른다. 그

러나 필자가 보기에 자기 주의 집중으로 인해서 개인의 행동 기준이 우수해져서 자기 조절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달리, 집단 상황에서는 공적이거나 사적 자기 단면에 주의가 집중되면 각각 집단의 공적 규범과 개인의 사적 규범이 우세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특히 긍정적으로 정체화된 내집단에서 공적 자기에 주의 집중이 되면 내집단 규범에 일치되는 방향으로 자기 행동 조절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비교 문화적으로 볼 때에도 주의 집중된 자기의 성질이 구미 문화권에서와 한국 문화권에서 서로 다른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관계지향성·상호의존성을 중시하고 개인보다 우리를 강조하는 현상은 한국 문화에서 자기가 개인을 단위로 개념화되기보다, 양자나 집단처럼 관계를 단위로 형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이수원, 1987; 한덕웅, 1994a, pp.422-426; Choi, 1993; Choi & Choi, 1990; Markus & Kitayama, 1991, p.239). 또한 문화에 따라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의 일치도가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만 하다. 즉,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가 비교적 일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Tesser & Moore, 1987), 집합주의 문화에서는 두 자기 사이에 불일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Triandis, 1990, pp. 79-80).

집단에서 자기 주의 과정에 주목하게 된 계기를 보면, 특히 Zimbardo(1970)의 탈개인화(deindividuation)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Diener(1980)의 연구에서 자각의 중요성이 명시적으로 부각되었다. 그는 탈개인화의 원인들로서 집단 응집력, 집합적 활동 및 주의의 외부 집중을 들었다. 그는 이 세 요인들이 작용하면 개인으로서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고 가정했다. 이 자각이 결핍되면 적절한 행위를 규정하는 개인적 및 사회적 기준을 무시하게 되며, 이 기준에서 이탈되는 환경내의 탈억제 단서들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가정했다. Diener와 Kasprzyk(1978)는 자각이 아니라 외부로 주의를 집중하게 되면, 집단 단결심이 높아지고 자각은 낮아지며, 억제하던 행위를 실행하는 탈억제와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Diener(1979)의 실험에서 집단 활동성과 집단 응집력, 흥분 유발 및 외부 주의 집중을 조작한 조건에서, 자

각이 이 조건보다 높은 통제 조건에 비해서, 유아용 우유병 물기, 진흙 먹기, 칠판지 소리내기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들의 탈억제가 심했다. 이 절에서 필자의 관심을 끄는 점은 탈개인화 현상 자체가 아니라 집단의 영향으로 구성원의 자각이나 행동의 조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Diener의 이론은 객관적 자각이론과 탈개인화를 통합함으로써 집단 상황에서 탈억제된 집단 행동이 자각이라는 내적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다고 설명한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Diener나 Carver와 Scheier에 의해서 수용된 객관적 자각이론은 주의 집중의 발생, 성질 및 후행 결과와 관련해서 몇 가지 대안가정들이 마련될 수 있다. 자기 주의 집중이 환경 요인들이나 개인의 자의식 성향에 의해서 발생된다고 가정되었는데, 이 두 경로로 발생된 자각의 성질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두 주의 집중 경로로 발생하는 자기의 단면들이 대체로 서로 다를 확률이 높다. 제어이론에 적용한 자기주의집중이론에서도 공격 자기와 사적 자기에 차별적으로 주의가 집중될 수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한덕웅, 1994a, pp. 426-427; Prentice-Dunn & Rogers, 1983). 그리고 차이가 인식되는 자기 단면의 선택과 정도 사전에 설명하지 못한다(한덕웅, 1994a, p.469). 또한 자기 주의가 환경과 개인의 두 요인 모두 높은 조건에서 어떠한 성질의 자각이 나타나며, 자기 조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물을 수 있다. Duval과 Wicklund (1972; Wicklund, 1975)의 객관적 자각이론에서 자기와 환경 가운데 하나에 선택적으로 주의가 집중된다고 가정한 점으로 볼 때, 이 경우에는 주의 분산으로 차이 감소를 위한 자기 조절 활동이 회피된다고 예측할 수도 있다(한덕웅, 1994a, p.469). 그러나 필자의 예측 역시 의식적으로 통제된 처리가 요구되는 조건에서만 나타날 수 있다. 달리 말해서 자동 처리될 수 있을 만큼 잘 습득되어 도식화된 자기 관련 정보들인 경우에는, 처리 용량의 제한 때문에 자기나 환경 정보 가운데 어느 하나에만 선택적으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도, 동시에 두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한덕웅, 1994a, pp. 360-361).

한편, 자각을 일으키는 상황 요인 가운데 사회적

단서를 사용해서 자기에 주의를 집중시키는 과정은 자기제시이론, 사회비교이론, 추동이론 등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이론적 과제들을 제기한다. 자기주의 이론에서 상황 단서를 자기에 주의 집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관중의 존재, 거울 보기, 비디오 촬영, 자신의 음성을 녹음한 소리, 집단 상황에서의 소수 지위 등의 조작 기법이 흔히 사용된다. 이 다양한 조작 기법들이 자기 주의 집중 수준을 유발하는데 동일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동, 사회 비교 혹은 자기 제시의 욕구를 일으키는 정도에서 서로 다를 뿐만아니라 자각되는 자기의 단면들도 서로 다를 수 있다. 집단에 적용된 자기주의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이 제어이론에서 가정하는 중요한 구성 요소들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적으로 구성원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집단은 집단 규범을 통해서 구성원의 행동 기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하도록 만들거나, 행동의 실행 결과를 환류하게 만들거나, 규범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바라는 자기상과 객관적 자기와의 지각된 차이를 경감시키게 함으로써 구성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집단이 순기능을 촉진하는 조건에서는 집단이 구성원의 자각 수준을 높임으로써 위에서 지적한 이 요인들이 집단 목표나 규범의 방향으로 구성원들이 행동하도록 만든다. 이는 사회적 촉진이나 집단의 협동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집단이 역기능을 하는 조건에서는 집단 구성원의 자각 수준을 낮추게 됨으로써 집단 목표나 규범에서 이탈된 행동을 보이게 된다. 탈개인화, 사회적 태만, 집단 수행에서 무임승승 효과 등은 이 경우에 해당된다. 자기 주의 과정을 집단에 적용한 이론들은 다양하다. 이 논문에서는 Prentice-Dunn과 Rogers(1983, 1989)의 차별적 자각이론과 Mullen (1983, 1987)의 자기주의이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Prentice-Dunn과 Rogers의 차별적 자각이론: 이 이론은 주로 집단에서 발생하는 탈개인화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용되었다. 이들은 탈개인화 행동을 일으키는 변인들이 자각에서 공격 혹은 사적 측면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가정했다(1989, pp. 93-98). 여

기서 공적 자각은 사회적 대상으로서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됨을 의미한다. 사회 상황에서 자신의 외모와 인상에 대한 고려도 이 공적 자각에 포함된다. 반면, 사적 자각은 지각, 사고 및 감정처럼 개인 내면에 주의가 집중됨을 의미한다. 이들의 가정에 따르면, 일정한 상황에서 자각을 감소시키는 자극 변인들 가운데 익명성이나 책임 분산은 자기의 공적 측면에서 자각을 감소시킨다. 이들은 전통적으로 탈개인화와 관련된다고 입증된 선행 변인들에 당면하게 되면, 행위를 탈억제시킬 수 있는 개인 내부의 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이 개인 내부의 변화는 두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가정되었다. 첫째, 익명성과 책임 분산은 공적 자기의 측면에 덜 자각하게 만들므로써, 자기 행위의 개인적 책임 가능성을 과소 추정하게 만든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타인들의 평가에 개의치 않게 되고, 보복, 검열 혹은 당혹을 경험하리라는 기대도 낮게 지각한다. 결과적으로 자신이 실행하는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낮다고 지각되어서 탈개인화 행동을 보인다. 이는 기대-가치설의 설명과 동일하다. 요약하면, 익명성과 책임 분산은 공적 자각 수준을 저하시켜서 탈억제된 행동에 기여하게 된다. 둘째, 집단 응집성과 생리적 흥분 유발은 자기의 사적 측면에서 자각 수준을 떨어뜨린다. 이들은 집단 응집성을 집단에서의 지각된 몰입으로 정의한다. 내적으로 탈개인화된 상태에서 개인은 사고와 정서의 변화를 수반하는 사적 자각의 저하를 경험한다. 요약하면, 집단 응집성과 흥분 유발은 사적 자각을 저하시켜서 탈억제된 행동에 기여하게 된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적 자기와 사적 자기에 대한 자각이 각각의 경로를 통해서 모두 낮아지면, 각각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 가능성은 저하되고, 탈개인화가 경험되어서, 결과적으로 내적 행동 기준보다는 환경 단서에 민감한 방향으로 행동이 이루어지게 된다. 탈개인화는 개인의 내적 행동 기준이 무시되고 환경 단서에 민감하게 따른 결과이다.

Mullen의 자기주의이론: Mullen(1983, 1984, 1987)의 자기주의이론도 제어이론과 마찬가지로 집단 상황이 ①구성원의 행동 기준, ②결과 기대, 및 ③자기

의 자각 수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성원의 행동이 달라진다고 가정한다. 이 세 요소들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집단 구성원은 개인마다 독특하게 지니는 개인적 행동 기준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며 규범적인 기준을 지닌다. 집단은 집단적 행동 기준의 특출성과 합법성을 확립시키는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 반면에 사회적 영향 상황에서 집단의 권위적 인물이나 다수에 의해서 확립된 행동의 기준을 반대하는 집단 구성원이 존재하면 이 영향력이 탈합법화된다. ②집단은 구성원들이 형성하는 결과 기대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한다. 결과 기대는 개인 수행의 성공이나 실패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집단 구성원인 유사한 타인의 수행도 개인 수행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을 추론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또한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지원도 성과 기대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수행이 개인의 수행 수준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협동 과제 조건에서는 결과 기대가 다른 집단 구성원의 수행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다. ③Mullen의 자기주의이론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자기 주의 집중으로 나타나는 자각 과정의 설명이다. 그는 이질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집단에서는 동질적인 조건보다 구성원들이 더 자기 주의 집중되며, 자신이 속한 하위 집단의 상대적 규모가 작아질수록 행동의 기준에 더 관심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을 중요시한다. 그는 이 연구 결과가 하위 집단의 규모가 작아질수록 집단 구성원들이 주의 과정에서 하위 집단을 전경(前景)으로 지각하는 경향 때문에 초래된 결과라고 본다. 집단에서 구성원들이 작은 하위 집단을 전경으로 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하위 집단 구성원들은 주의를 자신들에게 더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집단의 구성원들은 현 상태와 특출한 기준간의 차이에 더 큰 관심을 보이게 된다. 역으로 말하자면 규모가 큰 하위 집단의 구성원들은 덜 자기 주의 집중하게 되어서 행동이 특출한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덜 관심을 보이게 된다.

Mullen은 집단의 구성 성분이 개인에게 미치는 효

과를 타인-전체 비율로 개념화했다. 이 타인-전체 비율은 타인을 이루는 하위 집단 구성원의 수를 타인 하위 집단 구성원의 수와 자기 하위 집단 구성원의 수를 합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예를 들면, 4인의 타인들이 있는 관중과 상호작용하는 한 사람의 개인은 $4/(4+1)=.80$ 의 타인-전체 비율 조건에 해당된다. 반면, 한 사람의 타인이 관중으로 있고 네 사람이 자기 집단 구성원인 조건에서 타인-전체 비율은 .20이 된다. Mullen의 자기주의이론에 따르면 타인-전체 비율이 높아질수록 개인은 자신에게 더 주의 집중하게 되므로, 자각 상태가 높아지며, 우세한 행동 기준의 방향으로 자기 조절하려는 관심도 커진다고 가정된다. 그(Mullen, 1987)는 학급에서 학생들의 규모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Glass와 Smith (1979)의 관련 연구 통합 분석(meta analysis) 결과도 이 타인-전체 비율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그는(1985) 규모가 서로 다른 27개 고등학교 학급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타인인 교사와 자기 집단인 학생들 간의 타인-전체 비율에 따라 자기 주의 집중이 다르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그는 학급별 교사-전체 비율로 볼 때 이 비율이 증가될수록 학생들이 학급 토론에서 일인칭 단수 대명사를 쓰는 빈도가 높았다는 결과를 이 가설을 지지하는 자료로 삼았다. 더구나 학급 토론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여러 지표들로 측정했는데, 타인-전체 비율이 증가될수록 참여 수준이 높음도 보고했다. Mullen(1987, p.130)의 해석에 따르면, 교사 수의 증가 비율보다 학생들의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질수록 자기 주의 집중이 덜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학급 토론에 참가한다는 기준에 합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Mullen의 이 해석은 높은 타인-전체 비율로 자기 주의 집중이 높아지면 집단의 기준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단 토의의 참여처럼 자기 조절하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 가정은 자기 주의 집중으로 자기 행동 기준의 자각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하는 측면에서 Duval과 Wicklund의 객관적 자각이론 그리고 Carver와 Scheier의 제어이론의 가정과 조화된다. 그러나 이 두 이론들이 명시적으로 기준과 실제

행동간의 자기 차이를 감소시키려는 동기가 자기 조절을 일으킨다고 공통적으로 가정하는 바와 달리, Mullen의 세 가정들에서는 자기 주의로 초래되는 자기 차이 경감 과정의 가정없이 자기 주의가 자기 조절을 일으킨다고 가정한다.

자기주의이론의 논평: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기주의 이론들은 공통적으로 집단에서 자기에 주의가 집중되면 이미 설정된 행동 기준과 차이를 보이는 실제 행동의 조절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집단 상황에서 주의가 집중되는 자기 단면의 성질이나 선택 과정에 관한 명세화된 가설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의 집중으로 초래되는 효과들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자기 주의 집중된 단면이 자신이 동일시하는 내 집단 규범과 일치되는 공적 자기인 경우에는 자기에 주의가 집중된 조건이면서도 집단에 동조함으로써 탈개인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적 자기 주의 집중의 감소가 탈개인화의 중요 결정 요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Prentice-Dunn과 Rogers의 주장은 설득력이 작다. 또한 Prentice-Dunn과 Rogers를 포함해서 자기주의이론에서는 집단에서 주의 집중이 자기와 환경으로 양극화하여 배타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고, 개인적 자기에 주의 집중하지 못하고 환경 단서에 주의 집중하면 환경에 있는 탈억제 단서에 따라서 반응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역시 환경 단서들 가운데 자기 주의 집중을 높이는 단서들을 제외하지 못한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한편, Mullen의 자기주의이론에서 타인-전체 비율만에 의해서 자기 주의 집중 수준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타인-전체 비율이 자기 주의 집중 수준과 선형 관계를 이룬다는 실증적 근거가 미흡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이 두 요인간의 관계가 선형 관계를 이루는 배경을 심리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제안된 자기주의이론들은 몇 가지 제한점을 지니지만, 이미 탈개인화, 집단에서의 수행과 참여 등에 적용된 바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 이론은 집단 행동에 관한 몇 이론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사회적 정체성이론 혹은 자기범주화

이론과 관련짓는다면, 자기 범주화가 개인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 사이에서 심적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자기 주의 집중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자기제시이론에서 타인에게 자기 제시하려는 자기상의 성질을 자기 주의 집중 과정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성한기(1991). 집단극화 연구의 개관: 1961-1990.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0(1), 20-42.
- 성한기(1994). 집단극화에서 집단 정체성, 설득 주장 및 사회 비교의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원(1987). 한국인의 인간 관계와 情空間. 현대사회, 28호, 현대 산업 사회와 인간 적응, 182-194.
- 한덕웅(1990a). 소집단 행동 연구의 경향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24-58.
- 한덕웅(1994a). 퇴계심리학: 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한덕웅·성한기(1985). 선택이행에 관한 2요인설의 검증.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행동과학연구, 7, 173-185.
- Austin, W. G., & Worchel, S.(1979). *The social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Baron, R. S.(1986). Distraction-conflict theory: Progress and problem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9, pp. 1-40). NY: Academic Press.
- Baron, R. S., Moore, D. L., & Sanders, G. S.(1978). Distraction as a source of drive in social facilitation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816-824.
- Baumeister, R. F.(1982). A self-presentational view of social phenomena. *Psychological Bulletin*, 91, 3-26.
- Baumeister, R. F., & Hutton, D. G.(1987). Self-presentation theory: Self-construction and audience pleasing. In B. Mullen & G. R. Goethals (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pp. 71-88). NY: Springer-Verlag.
- Bond, C. F.(1982). Social facilitation: A self-presentational view.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2, 1042-1050.
- Bond, C. F., & Titus, L. J.(1983). Social facilitation: A meta-analysis of 241 studies. *Psychological Bulletin*, 94, 264-292.
- Brickman, P., & Bulman, R. J.(1977). Pleasure and pain in social comparison. In J. M.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pp. 149-186). Washington, DC: Hemisphere.
- Broen, W. E., & Storms, L. H.(1961). A reaction potential ceiling and response decrements in complex situations. *Psychological Review*, 68, 405-415.
- Carver, C. S., & Scheier, M. F.(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 Y.: Springer-Verlag.
- Carver, C. S., & Scheier, M. F.(1990). Principles of self-regulation: Action and emotion. In E. T. Higgins & R. M. Sorrentino(Eds.), *Handbook of motivation and cognition: Foundations of social behavior* (Vol. 2, pp. 3-52), N. Y.: Guilford.
- Choi, S. C.(1993). The nature of Korean selfhood: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2), 24-33.
- Choi, S. C., & Choi, S. H.(1990). "We-ness": The Korean discourse of collectivism.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cultural perspectives from East and West. July, 9-13, Seoul, Korea.
- Cottrell, N. B., Wack, D. C., Sekerak, G. J., & Rittle, R. H.(1968). Social facilitation of dominant responses by the presence of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 245-250.
- Deaux, K., & Major, B.(1987). Putting gender into context: An interactive model of gender-related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96, 608-630.

- Diener, E.(1979). Deindividuation, self-awareness, and disinhib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160-1171.
- Diener, E.(1980). Deindividuation: The absence of self-awareness and self-regulation in group members.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Hillsdale, NJ: Erlbaum.
- Diener, E., & Kasprzyk, D.(1978). *Causal factors in disinhibition by deindividuation*.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Illinois.
- Duval, S., & Wicklund, R. A.(1972). *A theory of objective self-awareness*. New York: Academic Press.
- Festinger, L.(1950). Informal social communication. *Psychological Review*, 57, 271-282.
- Festinger, L.(1954). A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es. *Human Relations*, 7, 117-140.
- Folger, R.(1986). A referent cognition theory of relative deprivation. In J. M. Olson, C. P. Herman, & M. P. Zanna(Eds.), *Relative deprivation and social comparison: The Ontario symposium* (Vol. 4, pp. 33-35).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een, R. G.(1979). Effects of being observed on learning following success and failure experiences. *Motivation and Emotion*, 3, 355-371.
- Geen, R. G.(1980). The effects of being observed on performance.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61-97). Hillsdale, NJ: Erlbaum.
- Geen, R. G.(1989). Alternative conceptions of social facilitation.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15-51). Hillsdale, NJ: Erlbaum.
- Geen, R. G., & Bushman, B. J.(1989). Drive theory: Effects of socially engendered arousal. In B. Mullen & G. R. Goethals(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pp. 89-109). NY: Springer-Verlag.
- Geen, R. G., & Bushman, B. J.(1989). The arousing effects of social presence. In H. Wagner & A. Manstead(Eds.), *Handbook of social psychophysiology*(pp. 261-281). London: Wiley.
- Glass, G., & Smith, M. L.(1979). Meta-analysis of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of class size and achievement.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1, 2-16.
- Goethals, G. R., & Darley, J. M.(1977). Social comparison theory: An attributional approach. In J.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Hemisphere.
- Goethals, G. R., & Darley, J. M.(1987). Social comparison theory: Self-evaluation and group life. In B. Mullen & G. R. Goethals(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pp. 21-47). NY: Springer-Verlag.
- Goodman, P. S.(1977). Social comparison processes in organizations. In B. Staw & G. Salancik (Eds.), *New directions in organizational behavior* (pp. 97-132). Chicago: St-Clair
- Greenberg, J.(1983). Overcoming egocentric bias in perceived fairness through self-awarenes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6, 152-156.
- Greenberg, J., & Rosenfield, D.(1979). Whites' ethnocentrism and their attributions for the behavior of blacks: A motivational bias. *Journal of Personality*, 47, 643-657.
- Groff, B. D., Baron, R. S., & Moore, D. L.(1983). Distraction, attentional conflict and driveline behavio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359-380.
- Hakmiller, K. L.(1966). Threat as a determinant of downward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ement 1*, 32-39.
- Henchy, T., & Glass, D. C.(1968). Evaluation apprehension and the social facilitation of dominant-subordinat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 446-454.
- Hogan, R.(1982). A socioanalytic theory of personality. In M. Page(Ed.),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 55-89). Lincoln, NE: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Hull, C. L.(1943) *Principles of behavior*. NY:

Appleton-Century.

- Janis, I.(1982). *Groupthink*(2nd ed). Boston: Houghton Mifflin.
- Jellison, J. M., & Arkin, R. M.(1977). Social comparison of abilities: A self-presentational approach to decision-making in groups. In J. M.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NY: Halsted Press.
- Kahneman, D., & Miller. D. T.(1986). Norm theory: Comparing reality to its alternatives. *Psychological Review*, 93, 136-153.
- Kahneman, D., & Tversky, A.(1982). Availability and the simulation heuristic. In D. Kahneman, P. Solvic, & A. Tversky(Eds.), *Judgment under uncertainty: Heuristics and biases*(pp. 201-208). NY: Oxford University Press.
- Latané, B., Williams, K., & Harkins, S.(1979). Many hands make light the work: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loaf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822-832.
- Major, B., & Adams, J. B.(1983). Role of gender, interpersonal orientation, and self-presentation in distributive-justic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598-608.
- Major, B., McFarlin, D. B., & Gagnon, D.(1984). Overworked and underpaid: On the nature of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 entitl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1399-1412.
- Markus, H. & Kitayama, S.(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0(2), 224-253.
- Markus, H.(1978). The effect of mere presence on social facilitation: An unobtrusive tes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389-397.
- McFarlin, D. B., Baumeister, R. F., & Blascovich, J. (1984). On knowing when to quit: Task failure, self-esteem, advice, and nonproductive persistence. *Journal of Personality*, 52, 138-155.
- Mettee, D. R., & Smith, G.(1977). Social comparison and interpersonal attraction. In J.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Washington: Hemisphere.
- Mowday, T.(1979). Equity theory predictions of behavior in organizations. In R. M. Steers & L. W. Porter(Eds.), *Motivation and work behavior*(pp. 124-146). NY: McGraw-Hill.
- Mullen, B.(1983). Operationalizing the effect of the group on the individual: A self-attention perspectiv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9, 295-322.
- Mullen, B.(1984). Participation in religious groups as a function of group composition: A self-attention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 509-518.
- Mullen, B.(1987). Self-attention theory: The effects of group composition on the individual. In B. Mullen & G. R. Goethals(Eds.), *Theories of group behavior*(pp. 125-146). NY: Springer-Verlag.
- Paulus, P. B.(1980).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1st ed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ulus, P. B.(1989).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2nd edit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aulus, P. B., & Cornelius, W. L.(1974). An analysis of gymnastic performance under conditions of practice and spectator observation. *Research Quarterly*, 45, 56-63.
- Prentice-Dunn, S., & Rogers, R. W.(1983). Deindividuation in aggression. In R. G. Geen & E. Donnerstein(Eds.), *Aggression: Theoretical and empirical review*(Vol. 2, pp. 155-177). NY: Academic Press.
- Prentice-Dunn, S., & Rogers, R. W.(1989). Deindividuation and the self-regulation of behavior.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15-51). Hillsdale, NJ: Erlbaum.
- Sanders, G. S., & Baron, R. S.(1975). The motivat-

- ing effects of distraction o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2, 956-963.
- Sanders, G. S., Baron, R. S., & Moore, D. L.(1978). Distraction and social comparison as mediators of social facilitation effect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4, 291-303.
- Schlenker, B. R.(1980). *Impression management: The self-concept, social identity, and interpersonal relations*. Monterey, CA: Brooks-Cole.
- Schlenker, B. R.(1985). Identity and self-identification, In B. R. Schlenker(Ed.), *The self and social life*. NY: McGraw Hill.
- Schlenker, B. R., & Weigold, M. F.(1989). Goals and the self-identification process: Constructing desired identities. In L. A. Pervin(Ed.), *Goal concepts i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NJ: Lawrence Erlbaum.
- Seta, J. J., & Hassan, R. K.(1980). Awareness of prior success and failure: A critical factor in task perform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0-76.
- Singer, J. E.(1966). Social comparison: Progress and issu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ement. 1*, 103-110.
- Steiner, I. D.(1972). *Group process and productivity*. NY: Academic Press.
- Strube, M. J., Miles, M. E., & Finch, W. H.(1981). The social facilitation of a simple task: Field tests of alternative explana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7, 701-707.
- Taylor, D. M., & Moghaddam, F. M.(1987). *Theories of intergroup relations: International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NY: Praeger.
- Tesser, A., & Moore, J.(1987). On the convergence of public and private aspect of self. In R. Baumeister(Ed.), *Public self and private self*. Berlin: Springer-Verlag.
- Thornton, D. A., & Arrowood, A. J.(1966). Self-evaluation, self-enhancement, and the locus of social comparis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Supplement, 1*, 40-48.
- Triandis, H. C. (1990). Cross-cultural studie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J. J. Berman (Ed.), *Cross-cultural perspective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Vol. 370). Lincoln & Londo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Triplett, N.(1898). The dynamogenic factors in pace-making and competitio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9, 507-533.
- Turner, J. C.(1975). Social comparison and social identity: Some prospects for intergroup behavior.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5, 5-34.
- Turner, J. C., & Oakes, P. J.(1989).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social influence. In P. B. Paulus(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urner, J. C., Wetherell, M. S., & Hogg, M. A. (1989). A referent informational influence explanation of group polarization.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8, 135-148.
- Wheeler, L., & Zuckerman, M.(1977). Commentary. In J. M. Suls & R. L. Miller(Eds.), *Social comparison processes: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pp. 335-357). Washington, DC: Hemisphere.
- Wicklund, R. A. (1975). Objective self-awareness.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8, pp. 233-275), NY: Academic press.
- Wills, T. A.(1981). Downward comparison principles in soci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0, 245-271.
- Worchel, S., & Austin, W. G.(1986). *Psychology of intergroup relations*(2nd ed.). Chicago: Melson-Hall.
- Worringham, C. J., & Messick, D. M.(1983). Social facilitation of running: An unobtrusive stud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21, 23-29.
- Zajonc, R. B.(1965). Social facilitation. *Science*, 149, 269-274.
- Zajonc, R. B.(1980). Compresence. In P. B. Paulus (Ed.), *Psychology of group influence*(pp. 35-60). Hillsdale, NJ: Erlbaum.

Zimbardo, P. G.(1970). The human choice: Individuation, reason, and order versus deindividuation, impulse, and chaos. In W. J. Arnold &

D. Levine(Eds.), *Nebraska Symposium on Motivation*(pp. 237-307).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Theories in 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I)

Doug-Woong Hahn

Department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Sung Kyun Kwan University

An attempt is made to critically review the major middle range theories in intragroup processes and intergroup relations from 1980's. The intragroup theories included in this article are drive theory, social comparison theory, self-presentation theory and self-attention theory, as applied to group processes. Theoretical approaches to intergroup relations included are relative deprivation theories, social identity theory, self-categorization theory and attribution approaches to intergroup relations. In addition, equity theory, social impact theory, interdependence theory of social influence, minority influence theory and procedural justice theory among others are partly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relevant theories. In order to obtain a comprehensive framework that systematize the intragroup and intergroup theories, a two-dimensional classification scheme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nature of group relationships(intragroup, intergroup) and levels of analysis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It is emphasized that group researchers in Korea ought to take the relationship orientations of the Korean people into account in studying group behaviors and intergroup relations.